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화순군수 재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순천에서는 야권연대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화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

특히 순천에서는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에 따라 민주당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측불허의 대혼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화순에서는 전직 군수 등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고 있어 민주당 후보 공천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민주 순천 무공천 성사될까

민노·진보·참여당 후보 단일화 합의  
예비후보를 강력 반발... 뒤집힐 수도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 3당 후보단일화 경선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연대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큰 틀의 합의를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 3당은 다음달 3일까지 시민단체와 협의해 시민배심경선을 통해 야권연대 단일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문제는 시민배심경선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이를 두고 조만간 협상에 들어가겠지만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실시했던 시민배심위원경선이 모태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론 3당 모두 자당에 유리한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현재 민주노동당에서는 김선동, 국민참여당에서 김선일 예비후보를 각각 내세운 상태다. 이 같은 야 3당 후보단일화가 이뤄지면 민주당을 탈당할 후보들과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은 변수가 남아있다. 우선 김해를 경선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협상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 민주당의 순천 무공천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국민참여당이 체육권 경선은 불가하다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김해를 경선방식 합의가 안 되더라도 큰 틀의 야권연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지역별로 후보 단일화 작업은 계속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야 3당이 지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순천 무공천에 대한 반발이 많기 때문이다. 또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민주당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순천 무공천 선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당무위원회 인준 과정에서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예비후보들은 탈당 시점을 늦추며 야권연대 협상 과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순천 민주 출신 무소속 vs 야권 단일후보

민주당 사실상 '무공천' 방침  
무소속 표 분산 여부가 변수



구희승 김경재 김선동 김선일 박상철 안세찬 조순용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9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27일 현재 예비후보는 ▲구희승(48·변호사) ▲김경재(68·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선동(43·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김선일(47·순천대 겸임교수) ▲박상철(51·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안세찬(49·전 민주당 순화규 대표 특보) ▲조순용(59·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상만(68·전 농림부장관) ▲허신행(68·전 농림부 장관) 후보(이상 가나다순) 등 9명이다. 이 가운데 김경재(무소속), 김선동(민노

당), 김선일(국민참여당) 등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예비후보들이다. 하지만, 민주당 예비후보 상당수가 당의 '무(無)공천' 방침에 반발, 무소속 출마를 공언함에 따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대 비(非) 민주당 출신 야권 단일 후보' 간 대결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야권 연합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 자체조사 등에 따르면 가상대결시

인지도 등의 측면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다소 앞선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그러나 무소속 출마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무소속 지지표가 분산될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 구희승·박상철·조순용 예비후보 등이 무소속 출마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고, 김경재 전 의원은 이미 무소속으로



허상만 허신행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 화순 전직군수 재대결속 민주 후보 촉각

민주 경선 후보자만 7명  
10명 넘는 후보자 난립



구동수 김이남 김재택 김형래 민병홍 배동기 백남수

화순군수 재선거에서는 임호경·전형준 두 전직 군수의 재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과 맞붙을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두 전직 군수 모두 무소속으로 예비후보를 등록한 상태여서, 이들을 꺾고 두 집안 간 싸움을 마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어서다. 또한, 그동안 7차례 화순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무려 5번이나 고배를 마신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또다시 무소속 후보에게 자리를 내줄 경우 당장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 공천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화순군수 재선거에는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7명과 무소속 후보 등 총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화순군수 경선 후보는 ▲구동수 호남대 겸임교수 ▲김이



임근기 임호경 임호환 전형준 최민원 홍이식

남 국제 신학대 초빙교수 ▲김재택 무진의료재단 이사장 ▲김형래 동북조합장 ▲배동기 전 화순부군수 ▲임근기 화순부군수 ▲홍이식 전남도의원 등 7명이다. 민주당은 우선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들 7명에 대한 1차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통해 2명으로 경선 후보를 압축한 뒤 2차 경선에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참여경선(당원 50%, 주민 50%)으로 최종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는 경선 후보 및 경선방법을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다음주 경선을 거쳐 늦어도 4월 초 최종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는 임호경·전형준 두 전직 군수의 재대결도 관심사다. 부부군수-형제군수 간 세 번째 리턴매치로,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지만, 부동의 지지기반만큼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그 지지기반이 이번 선거까지 표로 이어질지

는 미지수다. 여기에 임호환 전 한국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과 민병홍 전 전남도교육위원 등도 무소속으로 뛰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은 백남수 전 전남도당 부위원장을, 진보신당은 최민원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 이사를 각각 후보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체비를 서두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분당을 손학규 출마면 선거판 요동  
김해를 야권후보 단일화 최대변수

4·27 재보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야 모두 주요 선거구에서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관세는 안갯속이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는 각 당의 권력지형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의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분당 을>=모든 눈이 손학규 대표에게 쏠려있다. 손 대표의 출마 여부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분당 을의 특성상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지만 최근 민심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손학규 카드'가 현실화된다면 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손 대표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선당후사"를 언급,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단 후보 영입에 매진하면서 그래도 적임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출마를 결단하겠다는 기조로, 이에 따라 '3월말'로 제시했던 입장 표명 시기가 4월 초로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분당은 그의 결심 여하에 따라 야야 대결구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사>=MBC 전직 사장 출신의 한나

라당 엄기영, 민주당 최문순 예비후보 간 '빅매치'의 성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특히, 경창 동계올림픽 유치특위 고문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선거지연 대결과 '이광재 동정론'의 추이 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유동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임 예비후보와 최동규, 최홍집 예비후보 등 3명이 도전한 한나라당은 내달 4일, 최 예비후보와 조일영, 이화영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31일 각각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 김해 을>=한나라당의 예비후보 8명 중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본진 진출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야권 후보단일화가 최대 변수다. 하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으로, 야당 세(勢)가 강한 지역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야권 단일화 바람이 거세질 경우 자칫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야권의 경우 민주당 광진업,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가운데 그 누구도 후보단일화만 되면 일대일 대결에서 김 전 지사를 누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후보단일화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중소기업 성공 징검다리 제 4기 CEO 명품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기간
중소기업 호남연수원	실전경영	마케팅, 재무관리, 인사관리, 생산·품질관리, 정부지원정책 활용 등	격주토요일 11주 (총 77시간)
	중소기업사장학	기업가 정신 및 리더십(커뮤니케이션, 동기부여 외), CEO 핵심역량(의사결정, 협상 외) 등	

### ● 개강일자 4월 23일

### ● 교육신청

- 정 원 : 과정당 50명
- 대 상 : 상시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 CEO 또는 실직경영인(차세대 CEO 포함) (정원의 30%범위 내 일반기업 CEO 및 임원 참가 가능)
- 교육비용 : 100만원 ※ 수료시 50만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참가문의 중소기업호남연수원 062-250-3000 홈페이지 http://gjti.sbc.or.kr

중소기업청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호남연수원